

2019 국별 진출전략

러시아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 1. 개요 3
 - 가. 시장 전망 3
 - 나. 주요 경제지표 4
-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 가. 한-러 신 교역 플랫폼 구축 4
 - 나. 서방 제재에 따른 산업구조 다변화 정책 5
 - 다. 극동러시아를 통한 동북아시아 경험 강화 8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1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1
- 2. 시장분석 15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5
 - 나. 교역 18
 - 다. 투자 20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협력의제 22
 - 가. 교역 22
 - 나. 투자 24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5

III. 진출전략 33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33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4
- 3. 한-아세안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40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45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46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47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52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17년부터 경제회복세로 2019년에는 1.2~1.8% 경제성장 전망

- 국제유가가 하락 및 우크라이나 사태를 원인으로 한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2014년에 경제상황 크게 악화
 -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세계 1위(61% 비중), 매장량은 세계 6위(12.7% 비중)
-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1배럴당 80달러를 기록하는 등, 고유가 기조에 따라 2019년 1.5% 경제성장 예상

[러 정부 및 국제기관별 러시아 경제전망치]

(단위: %)

구 분	러 경제부	러 중앙은행	OECD	세계은행	IMF	EIU
2016	△0.2	△0.3-0.7	△1.7	△1.2	△1.5	△1.2
2017	0.8	1.1-1.4	0.5	1.4	1.0	1.6
2018	1.5	1.4-1.8	1.4	1.4	1.2	1.5
2019	1.4	1.2-1.7	1.5	1.8	1.5	1.3

나. 주요 경제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 구	백만 명	143.2	146.3	146.5	146.8	147.0	147.2	147.6
명목GDP	십억 달러	2,206.7	2,059.0	1,363.4	1,280.1	1,563.2	1,564.0	1,615.5
1인당 명목GDP	달러	14,068	12,972	9,099	10,986	10,654	10,655	10,945
실질성장률	%	3.7	0.8	-2.8	-0.2	1.6	1.5	1.4
실 업 률	%	5.7	5.2	5.6	5.8	5.4	5.4	4.9
소비자물가상승률	%	6.6	11.9	12.9	6.5	4.1	4.0	5.0-5.5
재정수지(GDP대비)	%	-0.1	-0.4	-2.4	-3.4	-2.2	-1.4	1.8
총수출	억 달러	5,280	4,936	3,519	2,885	3,343	3,364	3,760
(對韓 수출)	"	113.5	156.6	113.0	100.0	121.0	150.0	-

주요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수입	"	3,357	3,080	1,963	1,798	2,107	2,221	2,600
(對韓 수입)	"	110.9	101.2	46.8	51.0	75.0	100.0	-
무역수지	억 달러	1,923	1,856	1,556	1,087	1,236	1,143	1,160
경상수지	"	713	584	658	353	533	368	750
환율(연평균)	루블/US\$	31.09	55.43	61.34	67.06	58.53	62.43	63.9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505.9	220.3	68.5	325.4	330.3	-	-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자료원: 러시아 통계청(Rosstat), 러시아 중앙은행, EIU, WTA, KITA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019년 기준 러시아 주도 EAEU(유라시아경제연합)는 창립 5년차이며 회원국(5개국) 구성은 3년차. 러시아 정부는 EAEU 국가 간 인증을 통합하는 등 경제 블록화를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FTA 체결, 극동러시아 진출, 제조업 진출, 북방항로 개발사업 참여 등을 통해 러시아 경제협력 부가가치를 확대해야 함

가. 한-러 신 교역 플랫폼 구축

□ 한국-EAEU의 서비스 투자협정 체결 추진



[2018년 6월 한-러 비즈니스 포럼]

- 6월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귀빈 방문 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한-러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국내절차 개시에 대한 정부 간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

-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 체결 시 물류(운송, 해운), 의료, 관광, 건설, 정보 기술 등 러시아의 성장 산업 분야 및 시장에 한국기업의 진출과 수출경쟁력 제고의 기회 열릴 것
-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 준비
 - 한-EAEU FTA 사전단계로 한-러 양국 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정체결 예정
 - 보건·의료, 프랜차이즈, 유통·물류,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비관세장벽 등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 방해요인 완화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을 체결할 경우, 양국 간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강화로 기업들의 상호 투자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8월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 공청회 개최
- 서비스 투자협정을 통해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진입하고 러시아는 서비스 선진화 달성 가능
 - 러시아 서비스 분야는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낙후된 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은 매해 평균 8%, 물류산업 연간 물동량은 5.4%, 관광산업은 20% 증가하는 등 크게 성장
 - 극동 여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 증대로 2017년도 연해주 방문 여행객이 100% 이상 증가하며 호텔, 민박, 식당 등에 대한 투자 증가

나. 서방 제재에 따른 산업구조 다변화 정책



對러시아 미국 경제제재 연혁

- 2014년 3월 16일 우크라이나 사태 및 크림반도 합병 관련 제재 발표
 - (제재 대상) 군무기 생산 및 공급 기업(Almaz-Antey 등), 석유가스 기업(Rosneft, Gazprom 등), 금융(VTB, Sberbank 등), 크림반도 관련 기업(Chernomorneftegaz 등), 개인 100여 명(정치·경제인)
- 2018년 3월 2일 미국은 對러 경제제재를 2019년 3월 5일까지 재연장하며 러시아 견제

□ 러시아-서방 외교관 추방 등 국가 갈등 심화

- 2018년 3월 이중 스파이였던 세르게이 스크리팔 암살시도를 두고 서방은 러시아를 배후세력으로 지목하였고, 러시아는 해당 사건을 러시아를 서방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선정용으로 이용한다고 비판
- 2018년 3월 영국은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였으며, 미국이 뒤이어 러시아 외교관 60명 추방
 -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재한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고 60명의 미국 외교관 추방
 - 이 외에도 영국 외교관 73명, 23개 국가의 외교관 202명을 국외 추방

□ 미국 對러 추가 경제제재 발효

- 2018년 4월 9일 미국은 러시아 기업인, 고위 관리 24명과 14개 기업을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
 -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7명 및 관련 기업 12개사, 정부 요인 17명, 국영 무기 거래 기업 및 은행 2곳이 제재대상에 포함
- 이번 제재는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리히가 주요 타겟으로, 그들이 소유한 Rusal, Renova 그룹 등 비군수 부문 민간 재벌기업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됨
 - 세계 1위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Rusal 제재로 알루미늄의 전 세계 가격 일부 상승
 - 이전까지 미국의 對러 제재는 군수, 에너지, 금융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4월 제재에는 러시아 일반기업이 포함됨
- 4월 對러 추가 제재로 러시아 루블 가치 및 주식시장 폭락
 - 2018년 4월 6일, 달러/루블 환율은 57.83이었으나, 4월 11일에 64.06 기록. 유로/루블 환율도 70.71에서 79.28을 기록하며 루블 가치 12.1% 하락
 - 2018년 4월 5일 RTS 지수는 1,253.47p였으나, 4월 10일에는 162.77p 낮아진, 1,090.79p를 기록하며 12.98% 하락
- 2018년 5월 러시아는 對미 제재법을 발효함으로써 서방에 대한 역제재 시행
 - 해당 내용에는 특정 분야에서 국제 협력 중단, 특정국에 대한 상품 및 원자재 수출입 금지, 러시아 정부의 조달사업이나 국영 자산 민영화 프로젝트 참여 금지 등이 포함됨
- 러시아의 서방 농산물 및 식품 수입제한도 서방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유지될 것으로 보여 식품 및 가공기계 관련 한국기업에는 기회가 지속 전망됨

□ 가스 파이프라인 다변화

- Nord Stream-2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다변화 추구
 - 현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등의 동유럽 및 발트 해저를 통해 독일과 러시아를 잇고 있는 Nord Stream 확장 프로젝트
 - 2019년 말 시범 운행할 수송관의 길이는 1,200km 이상이며, 매년 550억㎥의 가스를 수송할 예정
- Nord Stream-2를 통해 러시아는 유럽에 안정적으로 가스 공급 가능
 -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정치적 충돌 위험을 배제하고 유럽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음
 - 특히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독일에 재정적, 전략적 이점으로 작용하므로 베를린을 유럽의 주요 연료 수송지로 만들 수 있음

- Power of Siberia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로 통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 야쿠티아-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는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로 특히 중국에 원활한 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함
 - 2014년 가스프롬과 중국 CNPC는 해당 가스관을 통해 연간 380억㎥의 가스를 30년 동안 중국에 공급할 것을 서명
 - Power of Siberia 프로젝트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12월부터 해당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 받을 예정

러시아 에너지 산업동향

□ (핵심산업) 석유 및 가스

- 경제비중
 - 연료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
 - 러시아 연방의 총 수출 중 석유·가스 수입비중은 2015년 42.9%, 2016년 57%, 2017년 61%
- 생산규모
 - 2017년 석유 채굴량은 전년 동기 대비 0.02% 감소한 5억 4,720만 톤을 기록. 2018년 1~5월에는 전년 대비 0.8% 감소한 2억 2,600만 톤을 기록

	2014	2015	2016	2017	2018(1~5)
원유생산량(백만 톤)	526.7	534.1	547.3	547.2	226.0
전년 대비 증감률(%)	0.6	1.4	2.7	-0.02	-0.8

- 2016년 가스 채굴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6,402억㎥를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6,910억㎥를 기록

	2014	2015	2016	2017
가스 생산량(십억㎥)	642.1	635.5	640.2	691
전년 대비 증감률(%)	-3.9	-1.0	0.7	7.8
가스프롬 생산량(십억㎥)	432.1	406.1	419.1	471

♣ 가스프롬의 수출동향

- ↓ 2016년 가스프롬은 총 4,191억㎥의 가스를 생산했는데, 이는 러시아 총 가스 생산량의 65.5%이며, 2017년에는 6,910억㎥에서 4,710억㎥의 가스를 생산해 전체의 약 75% 정도 차지
- ↓ 가스프롬의 EU 공급비중은 30%로 추정됨

○ 전망

- 2019년 Nord Stream-2 개발과 함께 석유가스의 주요 공급처는 EU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Power of Siberia로 중국으로의 수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Nord Stream-2와 Power of Siberia 프로젝트는 모두 가스프롬이 진행하고 있기에, 가스 공급을 시작하는 2019년 하반기부터 가스프롬의 수출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2035 에너지 전략을 통해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등 새로운 매장지를 발굴하고, 석유와 가스 공급 시스템의 현대화 및 확대를 통해 수출선 다변화를 추구
- 러시아는 OPEC 산유국과 석유 및 가스 감산에 합의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기에 단기간 내 채굴량을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기준금리 인상

- 2018년 10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25%에서 7.5%로 인상
 - 2014년 갑작스러운 경제침체로 인해 금리인상 시행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4년 만에 중앙은행의 첫 금리인상 결정
 - 금리인상은 미국의 對러 제재로 인한 루블화 가치 절하를 방어하기 위한 것임
 - 은행대출 부담 증가로 인해 러시아 내 기업활동 위축 가능성 있음
- 對러 제재 지속으로 2018년 9월 10일 달러/루블 환율이 70.6루블까지 오르며, 2018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
 - 2018년 1월 평균 환율은 56루블에서 9월 67루블까지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며, 월평균 2.3%의 하락률을 보임
 - 2월 0.4%로 최소, 4월 6.4%로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

다. 극동러시아를 통한 동북아시아 경험 강화

□ 한국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신동방정책의 교차점인 극동지역

- 양 정책의 밀접한 수요로 경험 강화를 통한 한·러 간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가능
 - 한·러 공동 신규사업 발굴과 일대일로 연계사업 및 동북 3성에 대해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
 - 남·북 관계 회복에 따라 한·러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남·북·러 협력사업도 기대
- 극동지역은 막대한 에너지·식량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시베리아횡단철도 (TSR)로 인해 유럽과 아·태 지역 간 교통·물류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 다대
 - 동북아 역내 교역증대 및 북극해 항로개설에 따른 수혜지로 7개 주요 항만 물동량이 최근 5년간 평균 약 12% 상승하고, 물류시장 규모는 3천억 달러로 추정

□ 북방경제협력의 비전인 9-Bridge 전략 추진을 위한 전초기지

- 아홉 가지 전략분야 모두 극동지역에서 시작 및 수행 가능 사업으로 당 지역 내 면밀한 조사와 적극적인 투자 필요

[9-Bridge 전략에 따른 9개 분야]

▷ (수산) 어항·물류·가공시설 조성	▷ (농업) 연해주 농업기지 구축, 곡물저장시설 설치(사일로) 등
▷ (전력) 한-중-몽-일-러 광역전력망인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 (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운송 및 남북철도(TKR) 연결
▷ (북극항로) 북극항로 상용이용 활성화 및 북극해 시장 선도	▷ (가스) LNG 등 가스 협력 확대, 향후 남북러 가스관 연결
▷ (조선) 극지이동 해빙 LNG 운반선 건조 및 조선소 건설	▷ (항만) 극동지역 항만 건설·현대화
▷ (산업단지) 연해주 공단 조성 등	

□ 극동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심 증대

- 2018년 상반기 연해주를 방문한 한국인은 총 7만 1,05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
 - 관광 관련 TV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여행객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
 - 현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저가항공사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취항을 하고 있으며, 전남-무안, 충북-청주, 강원도-양양에서 전세기를 운영

[2018년 상반기 연해주 방문 통계]

(단위: 명, %)

비즈니스	관광	개인	환승	승무원	총 계	전년 대비 증감률
792	69,292	971	1	2,178	73,234	105

자료원: 연해주 주정부

□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활성화

-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에 선도개발구역(ADT), 자유항(Free Port)을 설립하여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
- 극동러시아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유망산업은 농수산물 가공업, 물류 시스템 개선, 관광 클러스터 개발 등임
 - 2013년 푸틴 정부는 20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전략을 승인하며 극동지역의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
 - 에너지 수출 다변화를 위한 에너지 프로젝트 집중 추진
 - 클러스터의 기반시설인 수송망과 전력 시스템 구축 등 각종 인프라 건설 확대 전망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제도의 목적]

- ▷ 선도개발구역(TOR) : 수출 지향 산업 육성을 통한 극동지역의 경쟁력 제고(FEZ와 유사)
 - *나제진스카야(연해주) 포함 총 18개 지정
-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Free port) : 러시아와 아태 지역 국가 간 교역확대 및 국제화물 유치를 위한 지리·경제적 관점 활용(FTZ와 유사)

[극동러시아 개발 주요 프로젝트]

- ▷ 극동개발계획 2025 : 제조·플랜트, 자원개발, 농림수산, 수송인프라, 관광, 전력인프라 등
- ▷ 연해주 개발 프로그램 2025 : 수산 클러스터 개발, 조선수리시설 개발, 관광 클러스터 개발 등



러시아의 신동방정책(New East Asia Policy)

- 취지 : 극동개발과 아태 지역 협력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강대국 러시아 재도약
- 배경 : 2012년 극동개발부 신설, 극동 15개 지역(TOR: 선도개발구역) 지정,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을 통해 5개 자유항(블라디보스토크, 바니노, 코르사코프, 페벡,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지정
- 추진 : 2015년부터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정상회담·다이알로그·B2B 상담회 개최
 - * 2018. 9. 11~14 제4차 동방경제포럼 개최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푸틴 대통령이 2018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2019년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정책 위주의 경기부양 정책 기조가 유지될 전망
- 2018년 9월 기준금리가 4년 만에 인상되었으며,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도 상승될 예정
- 수입대체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육성정책이 정부 주도하에 지속될 전망

가. 정치 환경

□ 블라디미르 푸틴 4선 성공으로 정책기조 유지

- 2012년부터 집권 중인 푸틴은 2018년 러시아 제7대 대선에서 승리하며 2024년까지 집권 예정
 - 푸틴 대통령의 4선 성공에 따라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는 수입대체화 정책, 자국산업 육성정책 등 기존 정책기조 유지
- 2018년 3월 1일 연례 교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2020년대 후반까지 러시아를 세계 5대 강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 발표
 - 푸틴 정권의 특징은 '보수문화 가치관'을 근거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및 공공연한 반서구주의를 고수
 - 수입대체, 제조업 육성책 등 자국산업 보호에 근간을 두고 정부 지원이 유지될 전망
 - 수출품목 다변화, 중소기업 육성,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강조

□ 서방과 외교적 갈등 지속

- 2018년 3월 미국이 러시아 경제제재를 2019년 3월까지 연장하였고, EU는 2019년 1월까지 연장함에 따라 서방과의 갈등 관계는 일정기간 계속될 전망
 - Minsk II 협정(2015년 2월,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EU와 NATO 가입에 대한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 지속
 - 미 트럼프 대통령 정권하에서 서방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전보다 악화되고 있는

상태. 미 의회는 기존의 제재가 러시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 제재 입법 움직임을 보임

나. 경제 환경

□ 2017~2021년까지 연 1.6% GDP 성장 전망

- 2014~2016년 3개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2017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 2018년 1~8월 경제성장 1.6%를 기록하며, 경제 안정화 기조 유지
 - 2018년도 상반기에 경제성장 1.7%를 달성하였으나, 8월 1.0%로 다소 감소
 - * 2015년은 경기침체 최저점을 찍었으며 주요인은 크게 국제유가 하락, 서방 제재효과로 나뉨
 - * 2015년 실질 가처분소득은 20% 하락
 - 2017년 실질 개인소득은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2018년 1~8월은 전년 대비 2.2% 증가함에 따라 2019년에도 실질 개인소득 2%대 증가 전망

□ 2019년 경제대책 방향은 현상 유지

- 재정긴축정책 일환으로 공공부문 및 인프라 구축예산 지출을 줄이고 국가재정을 안정화
 - 2017년 러시아 정부예산은 지출이 2,827억 달러, 재정수익은 2,588억 달러로 파악
- 2019년 환율(루블/달러)은 2018년보다 소폭 평가 절상 및 유지 전망
 - 미국의 對러 추가 제재가 발효된 2018년 4월과 8월, 루블화 가치가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국제 정치상황 주시 필요
- 국제유가에 따른 경제 안정화 단기간 지속 예상
 - 러시아의 석유가스 GDP 비중은 약 20%이며 수출비중은 60%에 달함
 - 국제유가가 2018년에 지속 상승하여, 1배럴당 80선을 돌파하며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19년에도 고유가 예상

2024년 러시아 경제지원계획

□ 서민 경제 안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 푸틴 대통령의 2024 러시아 연방 국가 목표 전략적 과제에 따라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18년 10월 1일, 2024 사회경제 개발전망(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utlook up to 2024) 발표
- 해당 과제는 러시아 인구의 기대수명을 78세까지 연장하며,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연간 최소 5백만 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인플레이션을 4%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개발 속도를 높이고 혁신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수를 최대 50% 이상 증가시켜 러시아의 경제 성장 가속

[2024 사회경제 개발전망 주요 지표]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유가(배럴당 달러)	53.0	69.6	63.4	59.7	57.9	56.4	55.1	53.5
인플레이션(%)	102.5	103.4	104.3	103.8	104.0	104.0	104.0	104.0
GDP(십억 루블)	92,037	101,164	105,820	110,732	118,409	126,998	136,745	147,173
- 산업생산량 변화(%)	102.1	103.0	102.4	102.7	103.1	103.1	103.2	103.3
- 농업생산량 변화(%)	102.4	101.1	101.3	101.6	101.9	102.2	102.5	102.9
고정자본투자(십억 루블)	15,967	17,241	18,671	20,966	23,362	25,989	28,878	32,005
소매(십억 루블)	29,813	31,433	33,440	35,281	37,650	40,134	42,850	45,796
실질소득(%)	99.3	103.4	101.0	101.7	102.2	102.3	102.4	102.5
수출(십억 달러)	353.5	439.4	437.0	435.1	444.5	460.9	482.9	505.5
수입(십억 달러)	238.1	257.7	271.7	289.3	308.7	327.1	346.4	365.4
실업률(%)	5.2	4.8	4.8	4.7	4.7	4.6	4.6	4.6
달러/루블 환율	58.3	61.7	63.9	63.8	64.0	64.7	66.3	68.0

자료원: 러 경제개발부 '2024 사회경제 개발전망'

다. 산업 환경

□ 산업 및 인프라 투자 소폭 상승 가능성

- 0.25% 금리인상으로 산업 환경은 다소 위축될 가능성 존재
 - 2018년 10월 러시아 정부는 루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7.25% → 7.5%로 상향 조정함
 - 금리 조정을 통해 루블 가치 방어, 인플레이션 감소 등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기업 및 가계 등 경제활동 주체의 은행대출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평가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가가치세(VAT)의 18% → 20% 상향 조정도 소비자 경제 및 산업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 경기 안정화에 따라 2019년은 산업 및 인프라 투자가 소폭 상승할 것이나 극적인 투자 확대는 난망

□ 금융권 유동성 문제로 투자확대 예측 불투명

- 서방 경제제재에 따른 금융권 자금유동성이 지속 악화
 - 특히 2018년 8월 미국 상원에서 입안한 제재 내용 중, 러시아 최대 규모 8개 은행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달러 결제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확대

- 對러 추가 제재 위험심리로 인한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6월 22일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67.89를 기록
 - 2018년 8월 8일 환율이 63.7루블 기준 대비 6.6% 절하되며, 2016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루블 수요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스프롬 등 대기업들의 주주 배당금 지급, 외채 상환 등 달러 수요 증가요인과 시장심리 위축이 맞물려 루블화가 급락하고 있다고 평가
 - 제재로 인한 루블화 가치 절하로 환차익 리스크가 발생하여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발생

□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본격화

-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 개발 프로그램, 개발 펀드 등을 통해 극동지역 산업에 대한 개발 활성화
 - ‘2025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전략’을 통해 산업 인프라 개발에 대한 로드맵 마련
 - 2011년 극동 개발 펀드를 설립하여 인프라, 자원개발, 농업, 조선 등 현지 개발에 효과가 큰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380억 루블로 추정

[극동지역 투자유치 주요 제도]

- ◆ (선도개발구역) 2015년 푸틴 대통령 승인으로 도입되었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폭넓은 세금 면제로 제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
 - * 2015년 9개, 2016년 6개, 2017년 3개 구역이 지정되어 현재 총 18개 구역 지정
-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선도개발구역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며 통관 간소화 등 화물 수출입에 특화

라. 정책·규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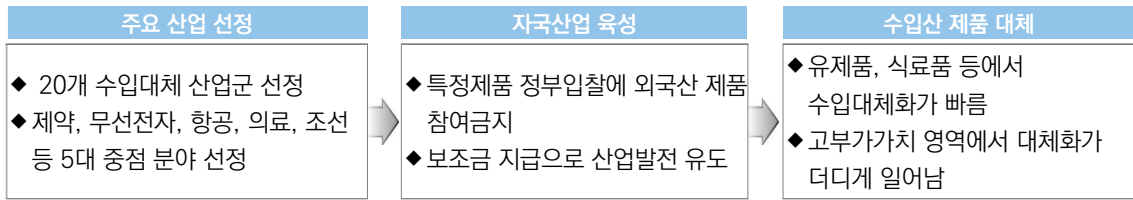
□ 급진적인 경제개혁 유보하며 기존 정책 유지

- 푸틴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2019년 급진적인 경제개혁 정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경제개혁은 유지 전망
- 부가가치세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심리 위축 예상
 -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가 18%에서 20%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소비자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여, 물가 상승률을 당초 전망치 3.5~4%에서 3.8~4.2%로 상향 조정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국산업 육성정책

- 2015년 서구의 對러 경제제재 및 경기불황을 계기로 본격화
 - 2014년 수입대체산업 육성분야로 제약, 의료, 무선전자, 항공, 조선 등을 지정
 - 2017년 경제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자동차, 섬유, 수송기계 제조, 농업, 도로건설, 식품 제조 및 가공 6개 분야에 대한 육성 강조

- 보조금 지급, 정부 입찰에 외국산 제품 참여 금지 등 다양한 제도 시행



자료원: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종합

□ 제조업 육성정책 강화

- 2024년까지 건축재정 및 제조업 육성정책 유지 전망
 - 푸틴 대통령은 대선 성공 후, '2024 러시아 연방의 국가 목표 및 전략적 과제'를 발표하며 국가 발전 우선순위 강조
 - 러시아는 2016년부터 전략적으로 공공부문 예산지출은 줄이고 실질 외환 보유액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자원개발과 같은 전략산업 부문은 글로벌화와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강력한 정부통제하에 부분적인 투자만 허용될 것으로 전망

2. 시장 분석

- 러시아 경제구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CIS 경제 주도 국가, 자원의존국, 중앙집권 및 지방 불균형 발전 정도일 것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스크리팔 암살시도 등으로 서방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호주의정책 기조하에 추진된 제조업 육성정책이 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상황. 러시아 경기회복과 함께 한국은 경제협력 강화라는 취지로 '신북방정책'을 수립하면서 향후 방향이 주목됨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러시아 시장 특징

일반적인 인식		최근 시장변화	
CIS 경제주도	· CIS 경제 70%를 러시아가 차지 · 여타 국가들의 높은 對러 의존도	EAEU 통한 경제 재편성	· EAEU 5개국 경제통합·블록화 · 우크라 CIS 탈퇴 및 EU 가입 노력
자원의존	· 국제 에너지 시세에 민감 · 제조 취약, 공산품 50% 수입	제조업 육성	· CIS 주요국 산업다각화 노력 · (보호무역) 비관세장벽 강화
지역편중	· 중앙집권과 높은 공공부문 비중 · 서부러시아 인구밀도 70% 차지	신동방정책 (균형발전)	· 선도개발구역(TOR) 확대 · 지방 국제행사 확대
높은 진입장벽	· 인허가, 노무 등 복잡한 법제도 · 독자표준, 높은 언어장벽	비즈니스 환경개선	·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경주 · 인센티브, 세제혜택 확대

□ 지역별 시장 특성

[러시아 지역별 특징]

지역	서부지역	중부 시베리아지역	극동지역
특징	거대 소비시장	자원, 기술	물류거점

- (서부) 산업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으며 러시아 전체의 소비와 트렌드 주도
 - 의료, 프랜차이즈 등 러시아 대부분의 산업은 서부지역에 집중. 의료산업의 경우, 전체 러시아 의료기관 4만 5,300개 중 모스크바에 13%가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 종사자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전체의 19.7%를 점유
 - 신기술 및 신유통구조(온라인 마켓 등) 대부분이 러시아 서부지역에서 처음 시행됨. 러시아 전체 시장을 선도하는 온라인 쇼핑물 기업인 ULMART, Wildberries 등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Wildberries에 따르면, 전체 매출의 30%가 모스크바, 5%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루어짐
 - 러시아 약 70%의 인구가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서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음
- (시베리아)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한 원자재, 에너지 및 제조업이 중심
 - 제조업의 경우 러시아 전체 생산량의 약 13%를 차지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따라 상권 형성,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분기점
 - * 노보시비르스크주 경제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교통 분야에 약 11만 4,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3만km에 달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역할 수행 중
 - 2018년 6월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대한 가능성 확대로 시베리아 물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철도 및 항공화물 물류센터로 기능하며, 러시아 물류 허브로 위치
- (극동) 동북아에 근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한국 소비재에 익숙하며, 극동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관심 증대로 투자 증가 전망
 - 서부 러시아 대비 인구가 적어 소비시장 형성이 어려운 환경이나 지리적 여건에 따라 동북아 소비재에 친숙하고, 품목별·국가별 전문 매장이 많음
 - *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 60만 명, 사할린 40만 명, 캅차카 30만 명 등
 - 서쪽으로는 광활한 시베리아와 동남쪽으로는 대서양을 접하고 있어 유통구조 자체가 자생형으로 발달
 - 최근 5년간 한국 화장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 중으로 수입액 기준 극동지역 시장점유율이 1위
 - * 2012년 이후 미샤, It's Skin, Tony Moly 등 한국 화장품 전문매장 본격 진출
 - 2018년 상반기 연해주를 방문한 한국인은 총 7만 1,05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

- 증가한 방문객 수에 비해 숙박시설, 식당,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2019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략적 가치

거대 수입시장	· EAEU 인구 1억 8,400만 명의 소비시장 · 한국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 잠재력 다대
유라시아 경제 핵심 파트너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 · 러시아 극동개발과 한국 신북방정책 연계 가능성 다대 ·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종단철도(TKR) 실현 가능성 증가
자원의 보고	· 세계 최대 자원보유 지역, 한국의 유력 자원공급처로 활용 가능 · 자원개발 협력 수요 막대
풍부한 인재	· 풍부한 노동력 보유, 저임금 생산기지로 활용 가능 · 기초과학, IT, 우주항공 등 최첨단기술 협력 가능성 무궁

- (거대시장) 러시아는 세계 1위 영토 보유와 세계 5위 경제규모(구매력 기준)
 - 세계 7위 소비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EAEU 창설을 통해 1.8억 인구와 GDP 2.3조 달러 단일시장으로 확대
- (지정학적 중요도) 남북한, 중국, 유럽을 잇는 물류와 교역의 중심으로 한국의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
 - 러 영토는 세계 1위(1,712만 5,200㎢/캐나다: 998만 4,670㎢), 안틀란틱해(발틱해, 흑해, 아조프해)와 태평양해(베링해, 오호츠크해, 한국 동해)에 접해 있으며 트란스-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극동-유럽(발트)까지 연결
- (지하자원 보고) 천연가스 세계 1위, 석탄·백금·철광석·니켈 2위, 금 4위, 다이아몬드 5위, 원유 7위 매장량
 - 러시아 보유자원의 세계 비중은 35% 수준이며 자원개발 광산은 2만 개 이상으로 개발 및 생산면에서 세계 1위
 - 주요 자원별 세계비중은 가스 17.3%, 다이아몬드 60%, 철광 26.3%, 원유(확인 매장량) 6.4%, 석탄 14.1%, 금 9.4%, 구리 3.3% 등
- (인재) 전통적으로 수학, 기초과학, IT, 우주항공 등이 발달되어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고급인력 및 기술력 보유
 - 인력 인프라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기술 노하우 교류 및 협력 수요 확대 중



〈 ExoAtlet 사례 〉

자료원: yandex

한-러 인적 협력사례

- ExoAtlet사는 신체 착용형 로봇 보행보조기 생산기업으로 기술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자본이 충분치 않았음
- 제이오시디콤, 코스모앳컴패니(한국)의 자본과 ExoAtlet(러시아)의 기술 합작으로 ExoAtlet Global 설립
- ExoAtlet Aisa는 2018년에 10대, 2019년에 150대, 향후 5년엔 1,400대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

나. 교역

□ 수출, 서방 제재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3년 크게 감소 후 2017년부터 회복세

- 2018년 1~7월 러시아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하여 2,47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도 경제회복 기조에 힘입어 교역증가 예상
 - 국제유가 상승은 석유가스 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2018년 4월부터 러시아-터키를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 Blue Stream 완공으로 안정적으로 가스 수출
 - 러시아 정부의 자국산업 육성정책 및 수입 대체화 정책도 수출증가에 일부 기여
 - Nord Stream-2, Power of Siberia 등의 가스관 개설로 수출 안정화 예상
- 주요 수출품목은 에너지·석유제품, 철·비철금속, 목재 및 목재 제품, 곡물, 비료 등이며 수입품은 전기 기계, 자동차·기계설비, 제약제품, 석유화학제품, 화학제품, 철·비철금속, 식품류 등

[러시아 교역 변화]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7)
수출 (증감률)	526 49.2	497.4 △5.44	343.5 △30.93	285.7 △16.84	357.8 25.26	247.9 28.06
수입 (증감률)	315.3 8.56	287.1 △8.95	182.9 △36.28	182.4 △0.25	227.5 24.69	135.8 11.56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2017 러시아 주요국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비중
	합 계	585,319	357,817	227,503	100
1	중국	86,975	38,919	48,056	14.86
2	독일	49,966	25,737	24,228	8.54
3	네덜란드	39,500	35,607	3,893	6.75
4	벨라루스	30,657	18,614	12,043	5.24
5	이탈리아	23,940	13,837	10,102	4.09
6	미국	23,198	10,614	12,584	3.96
7	터키	22,086	18,698	3,388	3.77
8	한국	19,245	12,311	6,934	3.29
9	일본	18,183	10,418	7,765	3.11
10	카자흐스탄	17,482	12,465	5,016	2.99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 수입, 경제회복으로 수입 증가

- 2017 기준 러 수입국 상위 1~2위는 중국(21.12), 독일(10.65%)이 차지
- 한국은 10위에서 8위로 올랐으며 비중도 2016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3% 기록

[2017 러시아의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변화율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7/2016
	총 계	182,902	182,448	227,503	100.00	100.00	100.00	24.69
1	중국	34,948	38,022	48,056	19.11	20.84	21.12	26.39
2	독일	20,441	19,455	24,228	11.18	10.66	10.65	24.53
3	미국	11,454	10,688	12,584	6.26	5.86	5.53	17.75
4	벨라루스	9,011	9,807	12,043	4.93	5.38	5.29	22.80
5	이탈리아	8,320	7,840	10,102	4.55	4.30	4.44	28.86
6	프랑스	5,919	8,490	9,630	3.24	4.65	4.23	13.43
7	일본	6,813	6,682	7,765	3.72	3.66	3.41	16.20
8	한국	4,560	5,111	6,934	2.49	2.80	3.05	35.67
9	카자흐스탄	4,807	3,645	5,016	2.63	2.00	2.20	37.61
10	우크라이나	5,673	3,951	4,912	3.10	2.17	2.16	24.33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2017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 및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변화율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7/2016
	총 계	343,512	285,652	357,817	100.00	100.00	100.00	25.26
1	중국	28,601	28,012	38,919	8.33	9.81	10.88	38.94
2	네덜란드	40,848	29,215	35,607	11.89	10.23	9.95	21.88
3	독일	25,351	21,256	25,737	7.38	7.44	7.19	21.08
4	터키	19,287	13,536	18,698	5.61	4.74	5.23	38.13
5	벨라루스	15,417	14,297	18,614	4.49	5.01	5.20	30.19
6	이탈리아	22,294	11,960	13,837	6.49	4.19	3.87	15.70
7	카자흐스탄	10,788	9,622	12,465	3.14	3.37	3.48	29.55
8	한국	13,482	9,998	12,311	3.92	3.50	3.44	23.13
9	폴란드	9,668	9,148	11,645	2.81	3.20	3.25	27.29
10	미국	9,432	9,223	10,614	2.75	3.23	2.97	15.08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다. 투자

□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2017년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286억 8,400만 달러 기록
 - 2010년도부터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는 연 500억 달러를 상회했으나 2014년부터 급감(220억 달러)하면서 2015년도는 최저점(68억 달러)을 기록
 -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국은 주로 조세회피 지역이며, 이를 제외하면 스위스, 프랑스가 주요 투자국

[對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1/4분기)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총투자액	6,853	32,539	28,684	7,044	33.4

자료원: 러시아 중앙은행(CBR)

[對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국가 순위]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7	2018(1/4분기)	
			순위	투자액
1	바하마	바하마	사이프러스	2,747
2	영국령버진군도	바하마 제도	영국	1,223
3	저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47
4	버뮤다	싱가포르	프랑스	513
5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470
6	독일	스위스	버진 아일랜드	446
7	영국	버뮤다	독일	397
8	중국	아일랜드	벨기에	295
9	아일랜드	프랑스	바하마 제도	254
10	일본	저지	오스트리아	249
11	카자흐스탄	홍콩	버뮤다	208

	2015	2017	2018(1/4분기)	
			순위	투자액
12	오스트리아	미국	저지	201
13	터키	독일	일본	188
14	미국	카자흐스탄	미국	163
15	스위스	헝가리	이탈리아	161
...				
21	한국	25 한국	18 한국	54
22	세인트키츠네비스	26 핀란드	19 아일랜드	45
23	스페인	27 벨라루스	20 케이맨 제도	41
24	아르메니아	28 리히텐슈타인	21 중국	40

자료원: 러시아 중앙은행(CBR)

-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분야는 주로 광업,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임
 -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국이 주로 조세회피 지역임을 감안하면, 광업과 도소매업은 주로 러시아 기업 재투자일 가능성이 높음
 - 금융 및 보험업은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광업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5% 감소

[對러시아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69,219	22,031	6,853	32,539	27,889
광업	7,101	4,542	11,489	22,251	7,904
제조업	16,494	1,173	6,839	4,884	2,852
도소매업	20,542	3,240	3,996	1,701	1,517
금융 및 보험	14,456	7,842	201	3,301	7,436
숙박업 및 요식업	187	93	112	79	74
전력	1,768	1,682	-1,940	-98	1,210
건설업	2,895	2,718	-1,051	-342	2,077

자료원: 러시아 중앙은행(CBR)

- 지역별로는 서부 러시아 투자가 90% 이상 집중
 - 러시아 GDP가 서부 러시아에 70%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지역의 재투자 또한 서부 러시아 소재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음
 - 폴크스바겐, 르노, 푸조, 네슬레, 이케아, 미셸린, 마스터푸드, 시트로엥, 미쓰비시, 삼성, LG, 롯데 등의 기업이 모스크바에 기 진출
 - GM, 도요타, 닛산, 포드, 스즈키, 보쉬, 펄시, 현대·기아 등의 기업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기 진출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산하에 PPP 센터를 개설하여 프로젝트 관리
 - 러시아 프로젝트 사업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PPP 센터 주도하에 2016년부터 프로젝트 내용을 외부에 공개
 - * 러스인프라(<http://www.pppi.ru/>)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 정보 검색 및 확인 가능

기관명	PPP 개발 센터
주소	Russia, Moscow, Ulitsa Sadovnicheskaya, 39, Bldg. 13
홈페이지	http://pppcenter.ru/

- 주요 업무
 - 프로젝트 시장 조사 및 러시아와 기타 EAEU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운영
 - 러시아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 수요 및 진입장벽 평가
 - 러시아와 기타 EAEU 국가 내 프로젝트 시행 지원
 - 경쟁력 증진을 위한 러시아 전역의 프로젝트팀 트레이닝 담당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등급 평가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협력의제

가. 교역

□ 러시아 경제회복으로 2019년에도 한-러 교역 성장 예상

- 2018년 1~9월 기준 한국의 對러 수출은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2% 소폭 상승했으며, 수입은 1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3% 상승

[2012~2018년 한-러 교역]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9)
수출 (증감률)	11.15 (0.5)	10.12 (△9.1)	4.68 (△53.7)	5.1 (12.1)	6.9 (44.8)	5.4 (0.2)
수입 (증감률)	11.49 (1.2)	15.66 (36.3)	11.30 (△27.8)	10.0 (△25.8)	12.0 (39.3)	12.6 (45.3)
무역수지	△6.47	△6.69	△8.00	△30.3	△5.1	-

자료원: KITA

- 對러 수출 1, 2위 품목인 승용차 및 차량부품 수출비중이 약 40%
 - 승용차 및 차량부품 다음으로 선박, 합성수지, 철 구조물, 건설중장비, 타이어 등의 수출비중이 높음
 - * (자동차) 현대·기아의 2018년 러시아 시장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월 17.6%, 5월 18%, 6월 10.5%, 7월 10.6%로 두 자릿수 회복세 지속

[2016~2017년 對러시아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번	품목명	2016		2017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4,769	1.8	6,906	44.8
1	승용차	925	1.5	1,380	49.2
2	자동차부품	727	-13.2	1,060	45.8
3	선박	6	83.5	448	6,947.7
4	합성수지	212	-12.0	252	18.8
5	철 구조물	114	309.7	251	120.2
6	건설중장비	109	82.5	245	124.8
7	타이어	98	28.5	139	40.8
8	기타플라스틱제품	105	-0.7	122	15.8
9	의자	72	22.6	113	56.5
10	아연도강판	90	-10.2	112	24.0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MTI 4단위 기준

자료원: KITA

[2016~2017년 對러시아 수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번	품목명	2016		2017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8,641	-23.6	12,040	39.3
1	원유	1,951	-44.2	2,918	49.6
2	나프타	1,827	-12.8	2,354	28.9
3	유연탄	1,433	0.9	2,256	57.5
4	천연가스	582	-54.6	711	22.2
5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84	-27.4	401	41.2
6	무연탄	284	19.6	389	37.2
7	고철	228	3.5	299	31.0
8	계	204	-0.1	298	46.0
9	우라늄	234	-21.9	256	9.2
10	중유	36	-74.7	211	486.9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MTI 4단위 기준

자료원: KITA

나. 투자

□ 對러 한국 투자 누적액은 약 25억 달러

-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0.8% 수준(2017년 상반기 기준)이며, 전체의 약 60%가 2007~2010년에 집중
 - 1968~2017년 누적금액은 26억 달러이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7%
- 2007년부터 對러 투자 본격화, 2007~2010년간 현대, 삼성, LG, 롯데 등의 대규모 투자(13.6억 달러) 후 2011년부터는 매년 1억 달러대 기록
 - 주요 투자분야(2007~2018)는 제조업이 14.8억 달러로 전체 對러 투자의 57.9%를 차지, 도매·소매업 13.6%, 농림어업 7.4%, 광업 7.0% 등 차지
- 한-러 간 투자관계를 보면 한국의 對러시아 투자가 많고, 러시아의 對한국 투자는 미미
 - 러시아의 對한국 투자는 도착금액 기준, 1962~2017년 9월 누적금액이 6,9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최근 5년 투자금액도 1,730만 달러에 그침

[연도별 對러 투자추이]

(단위: 개, 천 달러, %)

구분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	세계비중
총계	560	2,568,455	-
1989~1999	130	187,595	-
2000~2005	99	130,025	-
2006	22	108,975	0.91
2007	52	241,508	1.04
2008	62	359,253	1.48
2009	32	429,983	2.06
2010	22	334,352	1.35
2011	33	99,872	0.34
2012	16	109,288	0.38
2013	27	122,265	0.40
2014	21	114,031	0.40
2015	18	178,127	0.58
2016	18	110,441	0.31
2017	21	81,791	0.20
2018(1~6)	10	20,754	0.09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17~2018년 상반기 업종별 對러 투자비중]

(단위: 개, 천 달러, %)

업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비중	
	2017	2018(2H)	2017	2018(2H)	2017	2018(2H)
제조업	6	3	50,103	3,075	8.5	68.6
도매 및 소매업	5	3	5,554	1,531	0.6	1.6
광업	0	0	470	337	61.3	14.8
운수업	1	0	78	275	0	0
건설업	1	3	0	2	6.8	7.4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6,919	14,228	0.1	1.3
기타 시설, 지원, 정보통신 등	7	1	665	1,306	0.8	6.3
총 계	21	10	81,791	20,754	100	100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서비스 분야 진출사례

- 서울대 분당병원은 모스크바 스콜코보 의료 클러스터에 타쉬르 그룹과 협력하여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계획 추진
- 2017년 9월 15일 호텔롯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심 변화가인 넵스키 대로에 약 1,000억 원을 투자, 6층 건물, 154개 객실 규모의 '롯데호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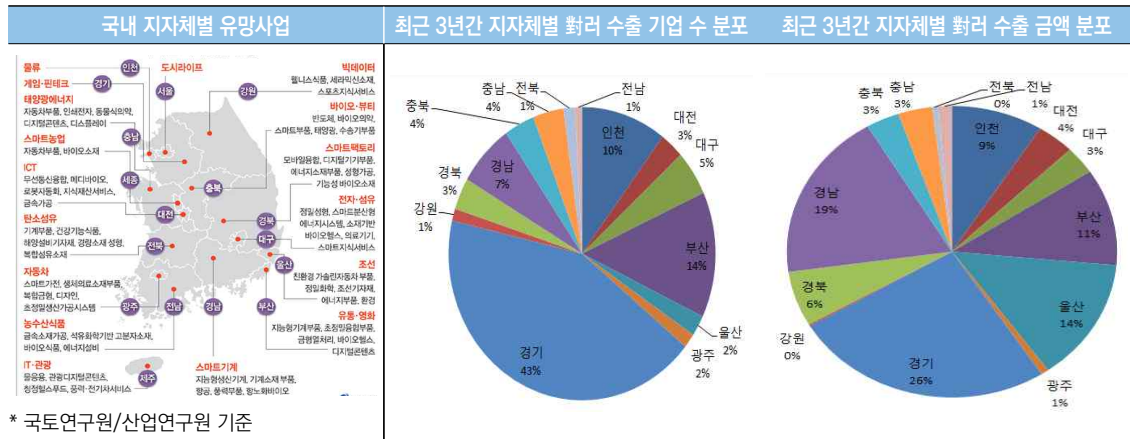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9-Bridge 실현을 통한 한-러 경험 확대

[9-Bridge에 대한 이해]

-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 중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러 경제협력의 9개 분야(전력, 가스, 조선, 수산, 북극항로, 항만, 철도, 산업단지, 농업)
- 9-Bridge는 북방경제협력의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며, 러시아와 9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님. 성공적인 북방 교류 및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CIS 전역에 경험의 다리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함

- 9-Bridge 전략을 바탕으로 극동지역 개발에 동참, 신동방정책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신북방정책의 추진력 확보
- 한-러 간 협력과 지자체 간 협력기반 아래 9-Bridge 분야 협력유망 산업에 대한 진출 고려 필요
 - 조선(울산), 농수산(전남, 경남), 항만(부산, 인천)과 對러 수출품 연관 분야인 자동차(광주, 전북), 기계(경남) 등(서울 제외)이 협력유망 분야로 사료



자료원: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종합

- 러시아 관구에 맞는 협력유망 분야를 파악하여 한국 지자체가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와 매칭 필요
- 진출환경 및 진출기반 고(高)지역(극동) 등에 협력(수출, 투자, 기술 등)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진출 우선지역으로 선정 필요

[러시아 산업·관구별 FDI 비중]

산업/관구	지역 9-Bridge	북서	중앙	남부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북코카서스
		○	○	×	×	×	○	○	×
농업·수산·임업	○	3.0%	2.0%	8.1%	5.3%	1.5%	4.3%	11.8%	11.9%
제조업·화학	×	16.7%	10.7%	15.2%	23.7%	16.6%	14.0%	9.7%	18.2%
전력·가스	○	0.8%	0.7%	0.9%	2.3%	1.3%	1.4%	1.0%	0.7%
건설	×	7.8%	7.1%	8.9%	6.6%	6.7%	7.6%	7.1%	4.9%
유통·자동차	×	24.4%	30.1%	24.9%	23.4%	24.0%	24.5%	26.0%	21.7%
IT	×	4.5%	6.1%	2.4%	5.0%	3.4%	6.5%	2.2%	2.8%
행정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로스토프	니즈니노브고로드	예카테린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베찌고르스크

주: 진출환경 고(高)

자료원: WORLDBANK(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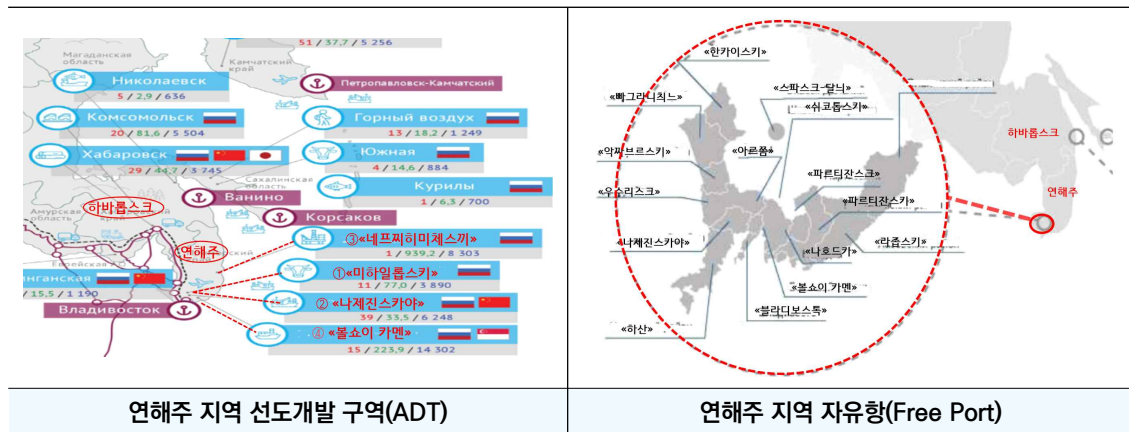
[현재 지원 중인 주요 9-Bridge 경험 프로젝트]

Bridge	프로젝트	유관기관·기업	비 고
농업	스마트팜 영농기술 협력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농공단지 개발 국가프로그램 연계
도로	사라토프 Meridian 도로 건설	도로공사·현대건설 등	민간투자·BOT 사업
IT	매연·페수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	한국환경공단	러 환경보호법 변화

자료원: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 극동러시아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투자협력

- 2015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TOR)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발효
 - 러 정부는 해당 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투자자 인센티브제 실시 예정
 - * 입주조건은 러시아 내 등록된 신규 법인 중 1억 원 이상 투자기업으로 일단 TOR 및 자유항 입주기업 선정 시, 세제혜택 수혜 가능
 - 러 측은 동 제도를 통한 한국의 본격적인 對극동러시아 진출 기대
 - 농수산물류보건의료 분야 등 유망 협력사업 발굴



[연해주 지역 선도개발구역(ADT) 및 연해주 지역 자유항(Free Port)]

명칭	선도개발구역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 «네프찌히미체스키»	선도개발구역 «발쇼이 까멘»
총 면적	171,700ha	376,327ha	39,000ha	8,124ha
주요 분야	목축, 원예	산업, 교통, 물류	정유, 석유 화학, 산업 생산	조선, 건설 자재 생산, 주거 건설
세제 혜택	- 법인세 : 0%(5년간), 13%(이후 5년간) - 재산세 : 0%(5년간), 0.5%(이후 5년간) - 토지세 : 0%(5년간), 지역 세율(이후 5년) - 사회보장세 : 7.6%(10년간) - 관세 : 수출입 관세 면제 - 부가가치세 : 환급			
행정 특혜	- 제한 없이 외국 노동력 유치(외국 노동력 비율은 특별 개발지대 위원회 감독관이 결정함) - 감사기간 단축 - 투자 프로젝트 위한 토지 제공 - 투자자를 위한 «하나의 창» 방식 - 관세자유지역 방식 적용 가능 - 운영기업이 법정에서 상주기업을 변호할 권리가 있음			

자료원: 주정부 제공

명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구(16곳)
총 면적	• 도시 주민구 : 아르쭘, 블라디보스토크, 볼쇼이 카멘, 나호드카, 파르티잔스크, 스파스크-달네우수리스크 • 지역구 : 나제진스크, 쉬코토프, 악자브라, 올긴스크, 파르티잔스크, 바스라니첸느, 하산, 한카이스크
주요 분야	모든 형태의 새 투자와 사업 부문에 적합한 통합 형태 (석유, 가스, 행정, 과세 제품 - 담배, 주류 등 생산 제외)
세제 혜택	• 법인세 : 0%(5년간), 13%(이후 5년간) • 재산세 : 0%(5년간), 0.5%(이후 5년간) • 토지세 : 0%(3~5년간) • 사회보장세 : 7.6%(10년간) • 관세 : 수출입 관세 면제 • 부가가치세 : 환급
행정 혜택	• 감사기간 단축(최장 15일) • 대규모 건축 시공 허가를 받을 시 서류 행정기간 단축 - 최대 40일 • '하나의 창' 원칙을 고수하며 국경을 통과할 시, 국경 통과소는 24시간 운영 •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8일간 비자 국경에서 즉시 발급 • 상주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세, 면세지역 • 외국 물품 수입, 보관, 소비(사용)

자료원: 주정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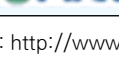
□ 물류 분야 협력 증진

- 러시아 물류산업 국제화 및 민영화 기회 포착
 - 러시아는 현재까지 민영화 중점 분야가 자원개발과 금융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물류업의 민영화도 진행되고 있음
 - 러시아 물류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노후화된 인프라의 현대화로 투자 진출을 통해 선제적 위치 선점 가능
 - * CJ대한통운은 러시아 페스코(FESCO)사와 MOU를 체결하여 CJ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페스코는 자사 운송 인프라를 통해 CJ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사업 지원 약속

[러시아 정부의 민영화 프로젝트 현황]

- 2017년 2월 8일, 2017~2019년 러시아 연방 자산 민영화법이 통과
 - 러시아 연방자산 민영화 계획은, 477개 주식회사와 298개 연방(국영) 기업의 주식과 10개 유한법인(LTD)의 러시아 연방 주식, 그리고 연방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
 - 2017~2019년 러시아 민영화 수익은 56억 루블(약 1억 달러)일 것으로 발표됨
 - * 2017~2019년 러시아 연방 자산 민영화는 2012년 5월 7일에 제정된 'On the Privatization of State and Municipal Property'법을 근거로 두고 있음
- 2017~2019년 러시아 연방 자산 민영화에 의거, 정부 주식이 완전 매각되어 민영화되는 경우와 정부 지분 일부가 매각되면서 정부 참여를 최소화하는 경우를 모두 민영화라고 통칭
 - Novolossysk 항구, United Grain사, Prioksky 비철금속 공장, Production Association Kristall 등의 정부 지분이 2019년까지 완전 매각되면서 민영화됨
 - Alrosa 주식회사의 사하공화국(아쿠티아) 주정부 지분과 Sovcomflot(항공사), VTB(은행) 등은 2019년까지 정부 지분 일부를 매각하여 정부 지분참여를 최소화할 예정
- 물류기업의 민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음
 - 민영화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 취득, PPP, 양허 계약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음
 - 하지만 러시아 연방 대통령 결정안(N460-F3)에 의거, 외국인 투자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영업권 보유자가 될 수는 없음

[러시아 물류 관련 민영화 기업 현황]

	기업명	현 러 연방 지분	민영화 계획
	SOVCOMFLOT	100%	러시아 연방 지분을 25%까지 감축 예정
	AEROFLOT	51.17%	러시아 연방 지분을 25%까지 감축 예정
	RUSSIAN RAILWAYS	100%	러시아 연방 지분을 75%까지 감축 예정
	SHEREMETYEVO	83.4%	러시아 연방 정부와 대통령의 판단에 근거해, 모스크바 항공 허브 개발과 관련한 지분에서 전면 철수
	VNUKOVO AIRPORTS	74.7%	
	STLC	100%	러시아 연방 지분을 75%까지 감축 예정

자료원: <http://www.rosim.ru/activities/sales/kga>

- 물류 서비스 협정을 통한 북극항로 개발 및 물류 협력 증진
 - 러시아는 북극지방 개발을 국가 발전의 중요 전략으로 추진
 - 북극해 항로는 유럽과 동남아의 최단 이동경로로서 현재의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통해 로테르담과 요코하마 사이를 연결하는 기존 남부 경로보다 이동시간 2/3 단축
- 푸틴 대통령의 2025년 러시아 극지방 사회경제 개발정책(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Arct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eriod until 2020)

- 150개 프로젝트를 지정, 수년간 5조 루블 투자 계획
- * 북극 개발 프로젝트 중 약 절반은 광물 개발과 가공과 관련, 야말-네네츠 자치구역 (Yamal-Nenets Autonomous District)에서 추진 중, 개발규모는 1,230억 달러로 추정

[러시아의 북극 개발사례]

	
야말-네네츠	사베타 항구 개발 목적

[대우조선해양 사례]

- 야말 쇄빙 천연가스 운반선 공급
 - 2014년 총 15척 수주(5조 3,000억 원)
 - 2017년까지 4척 인도, 2020년까지 매년 5척 인도 계획
- 야말 쇄빙 천연가스 운반선 공급의 의미
 - 세계 최초 쇄빙가스 운반선 건조 및 공급
 - 북극항로 시대 본격 개막
 - 북극자원 및 에너지 개발 참여 가능성 확대
 - 신북방정책 9-Bridge 전략 실현

【북극항로 개발 관련 행사】

-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의 2019년 한-러 조선 및 북극 비즈니스 로드쇼
 - (배경)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르한겔스크 등 북극항로·조선업 관련 협력 수요 증가
 - * 상트페테르부르크(조선소 약 300개 소재), 아르한겔스크(조선클러스터) 등
 - (방법) 한국 산업부 주관 한-러 조선업·북극항로 개발 협력과제 사업이 산재되어 중소 협의회들이 수행해오던 사업을 KOTRA에 집적화
- 2019 국제북극포럼 연계사업
 -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러 조선 및 북극 비즈니스 로드쇼와 같이 북극 개발 진출기반 마련



- 일시 및 장소 : 2019. 4. 9~10, 아르한겔스크
- 러시아 최대 규모 북극포럼으로 2010년 첫 개최, 2019년 5회째
- 2017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및 핀란드, 아이슬란드 대통령 등 참석, 10여개국 3,000여 명 참가

□ 의료 부문 협력 강화

-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보건부 간 MOU 체결을 기반으로 의료인 연수 등 의료분야 협력 추진 중
 - 서부 러시아 주요 도시를 제외한 지방은 의료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 질이 낮아 지역별 관료들은 한국을 매년 방문, 의료 직접투자를 주요 경험의제로 제시함
 - 극동개발부는 2015년 10월에 발효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내 ‘외국인 의료면허 인정’을 추가한 바 있으나 하원에서 계류 중

러시아 의료산업 현황

- 러시아의 의료시장은 의료 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하여 2017년 기준 1,084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파악
 - 2017년 러시아 의료산업은 전년 대비 19.3% 상승
 - 수입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의료시장 규모는 루블화 폭락으로 2015년 874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부터 회복되기 시작

【의료시장 분야별 규모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규모	969.7	874.4	908.9	1084.9	1146.4
의료기기	416(42.9)	415(47.5)	430.2(47.3)	476.2(43.9)	502.3(43.8)
의료서비스	343.3(35.4)	300.2(34.3)	314.5(34.6)	399.1(36.8)	416(36.3)
의약품	210.4(21.7)	159.2(18.2)	164.2(18.1)	209.6(19.3)	228.1(19.9)

주: * 2018년은 전망치

자료원: 러시아 국제제약회사연합(AIPM), 세계보건기구(WHO), KPMG 컨설팅,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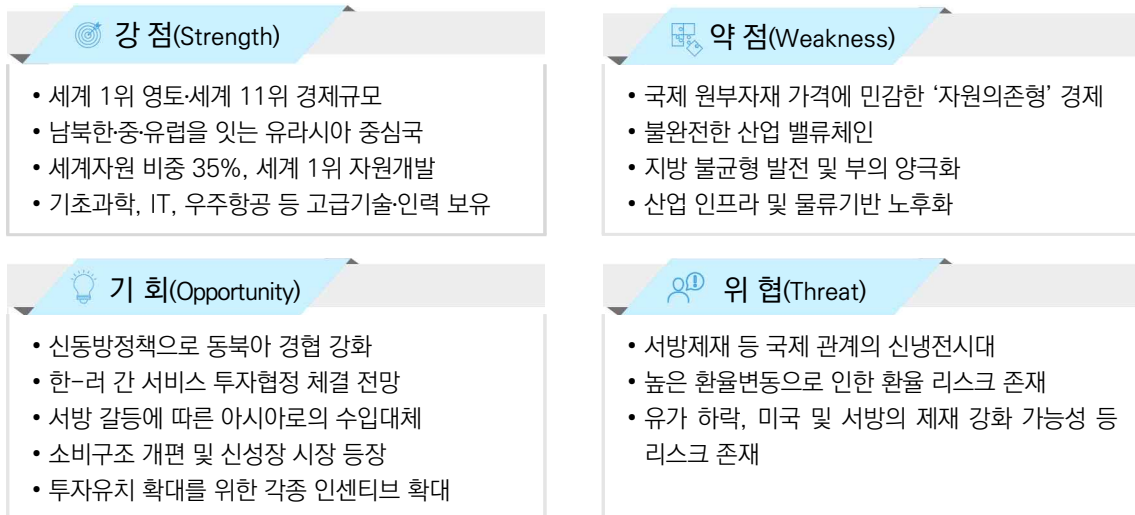
- (의료기관 현황) 2017년 기준, 러시아 전역에 약 4만 5,300개의 의료기관이 존재
 - 2017년 기준 모스크바, 모스크바주에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위치하여 있으며, 각각 3,550개와 2,394개 기록
- (의료 서비스) 러시아의 의료 서비스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3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9% 상승
 - 러시아에는 1만 명당 46.4명의 의사와 72.5명의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
 - 러시아의 무상의료 정책으로 인해 의료진 초봉은 평균 500달러 전후로 전문성과 노동 시간에 비해 급여가 낮아 점차 의료진 수가 줄어드는 추세
-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크게 병원, 클리닉, 응급실로 분류되는데, 클리닉(병원과 달리 입원 불가)이 2017년 전체 의료시설의 82.6%로 가장 많음
 - 2017년 기준, 클리닉은 3만 7,500개 운영
 - 클리닉 중 개인·사립 진료소가 가장 많으며, 2017년 기준 이들이 전체 클리닉의 61.7%를 차지
 - 공공병원과 민영병원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약 80%를 차지
 - 공공병원의 진료 및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암 치료와 같은 고도 치료기술이 낙후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 민간병원 이용 또는 해외방문 치료
- (의료기기) 러시아의 의료기기 시장은 2014~2015년 소폭 하락한 이후 2017년 2,706억 루블로 전년 대비 10.67% 증가하였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5.4%의 성장을 보일 것
 - 2017년 기준 의료기기 시장의 주요 수입제품은 '영상 검사기(Diagnostic Imaging)'와 '치과기자재(Dental Products)'의 비중이 높음
 - 2017년 기준 주요 수입국인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경우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으로부터 수입량은 2016년 → 2017년 33.9% 증가
- (의약품) 2017년 기준 2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4% 큰 폭으로 증가
 -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관은 러시아 의약품 시장이 2021년까지 285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러시아의 제약시장은 전체 시장의 74%를 민간 제약회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외국계 회사들이므로 집계
 - 최근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약 및 의료기기의 자국 생산을 높이기 위해 주요 외국 제약회사의 생산공장 유치에 매우 적극적
- (의료산업 투자환경) 의료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17년 14억 6,400만 달러였으며, 전년 대비 23.87% 감소
 - 의료 서비스 분야의 경우 병원 경영은 개방되어 있으나 외국 의료자격증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범위가 제한적
 - 외국인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가능한 특정 의료산업단지 혹은 러시아 의료진 교육 및 병원 운영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가능
 - 현재 러시아의 의료기기 자국 제조사들은 1,2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첨단기술의 고급 의료기기 제조사는 적음

III 진출전략

- EAEU 주도국인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 기술·인력·자본·상품의 흐름을 유라시아로 전환한다면 기존 대외경제 패러다임보다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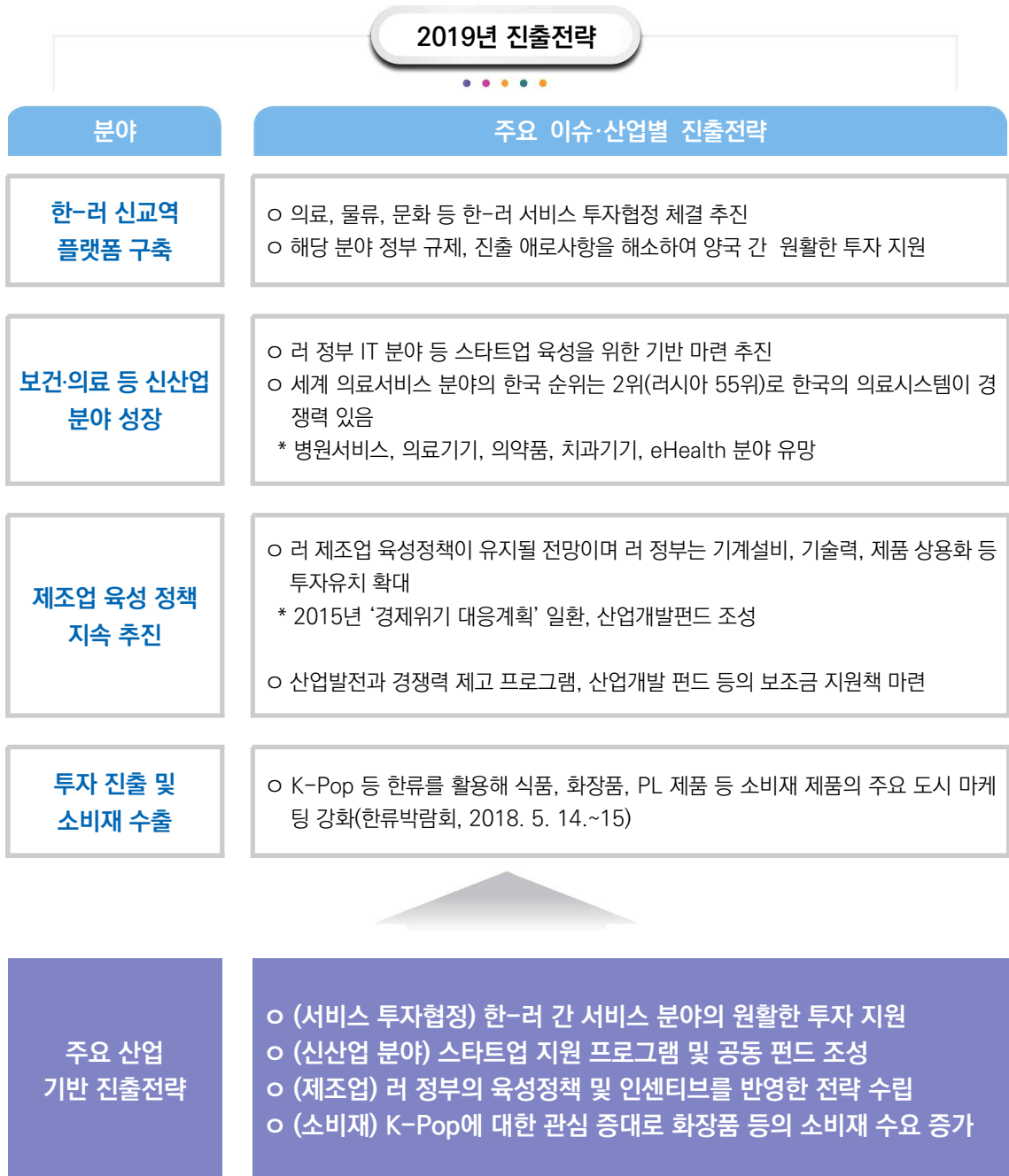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러시아 진출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한-러 투융자플랫폼 등 양자펀드 활용 프로젝트 개발 • 한-러 투자진출지원센터(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설치 및 운영	러 진출 우리 기업 대상 전대자금 확대, 원스톱 서비스 제공
ST 전략 (강점 활용)	• 대도시형 소비재 진출과 중소도시형 유통, 온라인, 기술협력 사업으로 Two-track화 • 현지 기술력·인력 활용한 제품상용화 사업 추진	지방 특화 마케팅 전략,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WO 전략 (기회 포착)	• 신성장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공략 지원 • 'Made in Russia' 현지화 확대에 따른 투자기회	정부 간 서비스 투자협정 자료 조사
WT 전략 (위험 대응)	• 서방의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 위주의 사업계획 • 국제 관계 항시 모니터링하여 조속히 정보 전달	서방 제재 우회사례 조사 및 전략 수립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가. 한-러 간 서비스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투자 진출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러시아 내에서 서비스 분야는 외국인 투자유치 움직임이 있고,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짐
- 서비스 투자협정을 통해 러시아 서비스 시장 개방이 예상되며, 이에 물류·운송, 의료, 여행,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 기업의 對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을 통한 경험 확대

- 2018년 국빈 방문을 통해 한-러 양국 간 서비스 투자협정을 약속
 - 성장하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 선점과 안정적 투자환경 조사를 목적으로 준비
 - * 러시아 GDP 중 서비스 비중 : 1990년대 32.1% → 2017년 60.4%
- 의료, 프랜차이즈, 관광, 문화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의가 예상되며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 강화로 기업들의 상호 투자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

□ 서비스 투자 진출유망 분야

-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 분야 시장진출 확대 전망
 - 종양 및 심장질환 등의 난치병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러시아인은 2만 4천 명에 이르며, 한국 의료 서비스를 높게 평가
 -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80%를 차지
 - * Numbeo 2018 자료에 따르면 195개 국가 중 한국의 국가 의료지수는 2위인 반면 러시아는 57위
- 한-러 협력을 통해 낙후된 러시아 유통·물류 서비스 개선 전망
 - 러시아 물류기업의 경우 단순 적재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포워딩 서비스 등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CJ대한통운은 러시아 물류기업 FESCO와 MOU 체결을 통해, 러시아 물류산업에 대한 투자 의사를 밝혔으며, FESCO로부터 대륙횡단철도(TSR) 관련 지원을 받기로 상호 협의

나.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밸류체인 형성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러 정부는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수입대체 및 IT 분야 등 스타트업 육성에 총력
- 2017년 7월, 러시아 원격의료 서비스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IT 접목 의료기기 및 의료 프로세스 확대 전망
 - * 러시아 병원 시스템은 공공병원 비중(전체의 80% 차지)이 높다 보니 진료 및 서비스 개선 지연

□ 4차 산업과 관련된 신성장 산업의 폭넓은 협력 필요

- 전통 제조업+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기술교류·고급인력 교류 필요
 - 병원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R&D 센터 운영, 물류 시스템 운영 등의 서비스, IT 분야 진출 고려
 - 기술 및 고급인력 교류를 위해 러 원천기술을 발굴하여 공동 R&D 사업 추진 및 공동 R&D 성과 상용화 지원 활성화
 - 전자제품, 기계류, 선박, 금속가공, 농산물 가공, 화학제품 등 전통 제조업 분야의 교류 지속 확대 필요
- 2019년 설치 추진 중인 한-러 혁신센터를 통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스타트업 협력, 시장진출 지원사업 복합 수행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 장기적으로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 협의

□ 러시아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

- 러 정부의 'Parma 2020'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50% 이상 의약품 현지생산 전망
 - 러시아 의약품 수입의존도는 75%로, 제조업 육성정책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어 의약 완제품 보다는 원료 수입이 증가 전망
 - * 러시아 의약품 시장규모는 약 230억 달러이며 연간 7%씩 성장 중
- 러시아 원격의료 서비스 법안 통과는 IT를 접목한 첨단 의료장비 수요를 증대할 것
 - '첨단의료기기 및 eHealth 세미나'를 통해 한-러 의료기술 협력 추진

다. 일반 기계 제조업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러 정부의 수입대체화 정책, 제조업 육성정책에 맞춰 일반 기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나, 중단기적으로는 수입증가 전망
- 2015년 ‘경제위기 대응계획’ 일환, 산업개발펀드(연 3.5억 달러) 조성으로 3년간 식품가공 기업이 20% 증가 하였으며 소비재 수입의존도가 2014년 38% → 2017년 33%로 축소

□ 러시아 수입대체화 및 제조업 육성정책 효과

- 러시아 정부는 자국산업 육성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프라 부족 및 산업환경 미조성의 사유로 중단기적으로는 수출증가 전망
- 러 정부는 ‘산업발전과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제조업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 주요 지원산업으로는 공작 기계, 소비재, 고부가가치 제품, 산업 인프라, 운송 장비가 있으며,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를 목표로 함
 - * 2018년 2,186억 루블, 2019년 2,179억 루블, 2020년 2,031억 루블 배정
- 2017년 경제지원계획으로 총 1,083억 루블(약 180억 달러)이 배정됐으며, 산업개발펀드, 신제품 판매, 6개 주요 산업(자동차, 섬유, 수송기계 제조, 농업 분야, 도로건설, 식품제조 및 가공)에 중점적으로 배정

러시아 산업개발펀드 지원현황

- ▷ 2017년 자동차 분야가 가장 많은 지원(약 3억 달러)을 받을 예정
- ▷ 2017년 2월 기준 자동차, 식품 등 16개 분야에서 총 127개 프로젝트를 지원, 총 대출금 규모는 337억 루블 (약 5.8억 달러) 수준

[러시아 산업개발펀드 지원실적(2017년 2월), 중점지원 분야 대출조건]



라. 러시아 K-Beauty 및 한국 프리미엄 이미지 활용한 소비재 진출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對러시아 한국 투자는 2007년부터 본격화, 현대·삼성·LG·롯데 등 한국 프리미엄 이미지를 초석으로 진출 시작
- 투자진출 주요 분야는 제조업(39%), 도소매업(35%) 등으로 러시아 경제구조 개선 취지에 상응
 - * (주요 기업) LG, 삼성, 현대기아, 롯데, 한국야쿠르트, 오리온, KT&G 등
 - * (식품) 오리온, 롯데, 팔도 등 라면, 제과, 음료 분야로 진출

□ 한국기업 투자진출과 K-Beauty 효과 확대

- LG, 삼성, 현대 등 프리미엄 상품 이미지 구축에 이어 K-POP,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한 화장품 시장 진출 확대
 - 러시아의 K-Beauty 트렌드는 2010년부터 시작, 온라인 유통 및 SNS를 통해 본격화
 - * 2010년부터 러시아 내 K-Beauty 트렌드가 시작되면서 미샤, Tony Moly, Holika Holika 등 화장품 매장 및 유통 진출 확대 중

□ 진출전략

- (마케팅) 러시아 소비자들의 개인적 취향이 다양해짐에 따라 성별·연령별·직업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구축
- (품질·가격 경쟁) 유럽 지향적 러 소비자들이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유럽 품질과 중저가를 동시에 충족하는 상품을 선호, 소비성향에 맞는 전략 구축

- 극동러시아의 한국산 제품 인기도가 높은 이유는 유럽 및 일본 제품과 품질 차이가 적고 가격이 보다 저렴하기 때문

(행사) 한류 박람회

- 2018년 5월 14~15일 러시아(모스크바)에서 '한류 박람회' 개최
 - (목적) 신북방정책 거점인 러시아 진출을 위해 한류를 활용한 산업·문화 융합형 박람회 추진으로 한국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진출 확대
 - (규모) 국내기업 102개사, 해외 바이어 333개사, MOU 12건, 1,600만 달러 체결
 - (품목) 화장품, 패션잡화, 생활용품, 의료서비스, 콘텐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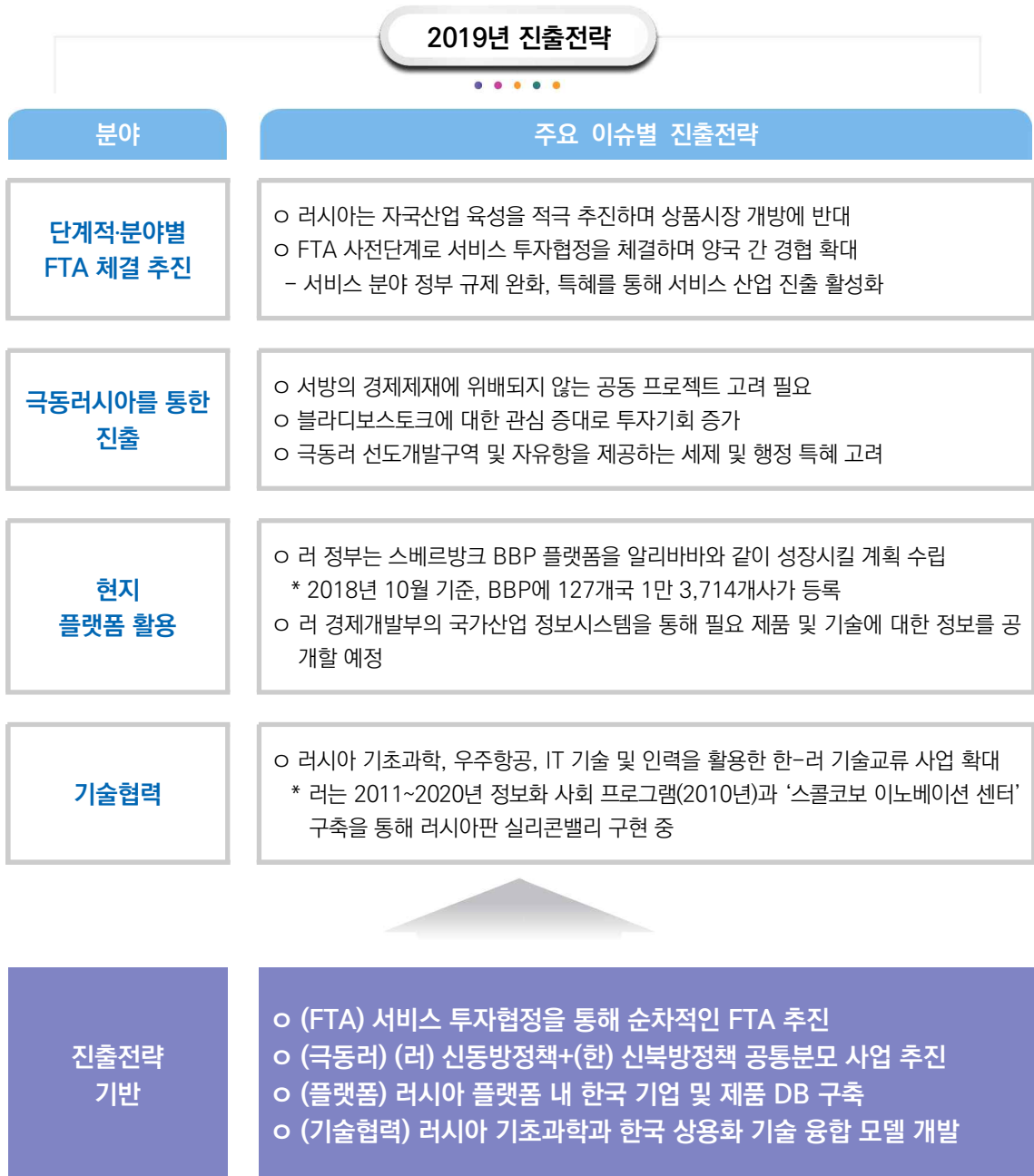


상담장



홍보관

3. 한-러시아 경협을 통한 진출전략



가. 단계적·분야별 FTA 체결 추진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러 정부의 자국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한-EAEU FTA 체결 난항
- 한-러 양국은 FTA의 초석단계인 서비스 투자협정 체결을 약속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서비스 투자협정 현실화를 위해 의견 조율 중

□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을 통한 경험 확대

-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러시아로서는 상품시장 개방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러시아 측의 수용가능 분야 중심으로 단계적·분야별 FTA 추진 필요
- 러시아 측이 비협조적인 상품 중심의 한-EAEU FTA보다는 서비스 투자협정을 통한 상호 시장 진출 확대 필요
- 2018년 국빈 방문을 통해 한-러 양국 간 서비스 투자협정을 약속
 - 성장하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 선점과 안정적 투자환경 조사를 목적으로 준비
 - * 러시아 GDP 중 서비스 비중 : 1990년대 32.1% → 2017년 60.4%
- 의료, 프랜차이즈, 관광, 문화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의가 예상되며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로 기업들의 상호 투자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

□ 협의 가능 분야

- 주요 품목부터 국제인증 인정, 양국 인증 교차인정 추진 등 필요
 - GOST-R 인증, CU 인증 등 러시아만의 인증 취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특히 초기 시장 진입업체들에는 극심한 부담
- 러시아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물류 서비스 기능 확대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의 물류성과지수(LPI)는 163개 국가 중 99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프라의 질, 물류 서비스 경쟁력, 물류 추적 기능 등이 낙후
 - 세관절차 및 운송에 대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물류과정에서 과도하게 소요되는 시간 절약 가능
 - * 이론적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열차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야 하나, 최소 2주에서 최대 한 달까지 소요

나. 극동러시아를 통한 프로젝트 참여 및 투자진출 확대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선도개발구역(TOR)과 자유항 제도에 따라 극동러시아 투자환경 크게 개선
 - * 현재 입주 희망 기업은 선도개발구역에 118개, 자유항에 143개사 등이며 123억 달러 규모의 가치 창출
- '극동개발계획 2025', '연해주 개발프로그램 2025'에 따라 제조 플랜트, 농수산, 물류 인프라, 관광, 전력 인프라, 조선시설 등이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될 예정

□ 극동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증가

- 러시아 자체적인 극동개발 가속화로 2017~2018년 프로젝트 증가
 - 극동지역 프로젝트는 인프라의 현대화 사업이 주를 이룸

[2018년 발주 극동지역 프로젝트]

연번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1	풍력 발전기 제조	풍력 발전기 생산공장 설립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개발
2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건설	트럭 클러치 및 공기 필터 생산의 수입대체
3	곡물 운송 선박 터미널 구축	2024년까지 150명 규모의 곡물 운송 터미널 건설
4	육 가공공장 설립	연간 2만 2,500톤의 칠면조육 가공시설 설립 가금류 사육을 위한 복합 사료공장 설립 추진
5	해산물 가공공장 설립	연간 1만 3,500톤의 가리비, 홍합, 다시마 등의 해산물 가공 라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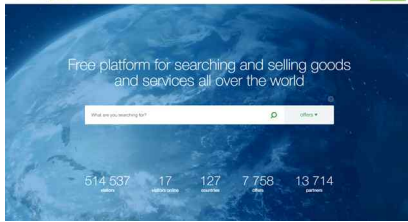
자료원: Investprojects,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 서방의 경제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극동러 프로젝트 발굴 및 참여
 - 정부 차원의 협력사업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추진사업이 제재대상인 경우, 기업 간 협력이 아닌 정부 간 협력으로 제재 회피
 -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금융기관을 활용하고, 현재 Alfa Bank로 한정되어 있는 전대금융을 비제재대상 타 은행으로 확대 필요

다. 러시아 투자 플랫폼 활용

□ 러 정부 무역 플랫폼 성장 노력

- 러시아 스베르뱅크는 Bank of Business Partner(BBP)를 통해 러시아 기업의 해외 파트너 확보 목적
 - 스베르뱅크는 추후 BBP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방제재로 인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대금결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2018년 10월 기준, BBP에 127개국 1만 3,714개사가 등록되었으며, 스베르뱅크는 BBP를 알리바바와 같이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Free platform for searching and selling goods and services all over the world

What are you searching for?

514 537 users, 17 categories, 127 countries, 7 758 items, 13 714 suppliers

〈<https://bankofpartners.com/>〉

■ BBP 특징

- 현재 가입 및 제품 등록과정이 무료로 진행됨
 - 스베르뱅크는 등록기업이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 유료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힘
- 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작성, 게재 가능하며 3회 클릭으로 비즈니스 파트너 검색 가능

- 러시아 경제개발부 주도로 국가 산업정보 시스템(GISP) 플랫폼 개발을 통해 인프라 구축, 산업, 무역 등의 디지털 라이제이션 추구
 - GISP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근시일에는 프로젝트까지 분야를 넓힐 예정
 - 바이어 정보 외에도 프로젝트, 정책, 규제 등 러시아 내 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 제공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FOR PARTNERS

FINANCIAL SERVICES, DEVELOPMENT INSTITUTIONS AND PROVIDERS, INDUSTRY ASSOCIATIONS, CLUSTERS, COOPERATION CENTERS, PUBLIC ADMINISTRATION

〈<https://gisp.gov.ru/>〉

■ GISP 특징

- 해당 플랫폼은 러시아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에, 현재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자료는 극히 제한됨
- 기업이 직접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을 통해 등록 요청 가능

- 러 원자력공사는 Gosstart 플랫폼을 통해 4차 산업 관련 기술에 투자 예정
 - 푸틴 대통령은 20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가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4차 산업 관련 기업지원 강화를 지시

- Gosstart는 러시아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신청기업을 확인 및 검토하여 금전적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해당 플랫폼은 현재 개발 단계이며, 신청 양식, 평가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음

라. 4차 산업에 기반한 한-러 기술협력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러시아 산업기술 강점 분야는 우주항공(엔지니어 포함), 원자력, 조선, 정보통신 및 측지기술(방산 관련) 등으로, 러시아는 기초과학 기술 및 고급인력 강국
- * 러시아 노동인구의 24%가 대졸 이상이며 WEF(세계경제포럼) Human Capital Report의 러시아 인력 국제 순위는 22위(124개국 중)

□ 러시아 4차 산업혁명은 2014년부터 시작

- 2014년 12월, 푸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15년 ‘2035 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NTI)’ 수립
- NTI에는 AeroNet(무인항공기), NeuroNet(인공지능), EnergyNet(스마트 에너지), AutoNet(스마트차), MariNet(스마트조선), HealthNet(스마트헬스), SafeNet(정보보안), FoodNet(생물공학 및 스마트영양), FinNet(개인금융) 등 산업과 첨단기술이 총체적으로 적용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made WITH’ 활용, 러시아 기초과학 기술 및 고급인력과 한국 상용화 기술이 융합된 협력방안 구축
- 국제적인 보호무역기조 및 러시아 수입대체, 첨단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한국식 4차 산업혁명 경험을 플랜팅할 수 있는 사업 추진

(행사) 2018 예카테린부르크 산업전시회 파트너 국가 참가

- 2018 Innoprom(2018. 7. 9~12, 예카테린부르크, 3,090㎡) 파트너 국가 참가
 - (성격) 러시아 최대 산업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전 세계 90여개국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대형 전시회
 - (한국관) 3,090㎡, 103개사가 참여하여 736건 상담
 - (분야) 산업재, 기계설비 등

수출유망 품목

품목명 1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0 - 5%
차량 및 부품	수입액('17/US\$백만)	5,219	대한수입액('17/US\$백만)	697
	선정사유	본 품목의 한국산 점유율이 안정적임		
	시장동향	러시아 자동차부품 시장 회복세 유지. 현대·기아자동차의 신차 판매량은 2018년 1~8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회복세 유지		
	경쟁동향	일본 회사의 경쟁력과 지분이 가장 큼		
	진출방안	고품질의 제품을 더 접근성이 높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품목명 2	HS Code	271019	수입관세율(%)	5%
석유와 역청유,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기타	수입액('17/US\$백만)	494	대한수입액('17/US\$백만)	36
	선정사유	최근 3년간 한국산 점유율 지속 증가		
	시장동향	자동차 시장 활성화로 엔진 오일을 포함한 석유 제품 수요 증가		
	경쟁동향	러시아 자국 제품 생산 및 수요가 크게 증가		
	진출방안	현지 공장 설립, 혹은 러시아 기업과 협업하여 현지 시장 진출 필요성 증가		
품목명 3	HS Code	840310	수입관세율(%)	10%
보일러	수입액('17/US\$백만)	221	대한수입액('17/US\$백만)	27
	선정사유	본 품목의 한국산 점유율이 안정적임		
	시장동향	겨울이 긴 계절적 요인으로 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며, 유럽의 유명한 브랜드 보일러를 다수 선호		
	경쟁동향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독일 등 유럽 기업의 보일러 제품과 경쟁 필요		
	진출방안	보일러에 IoT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선보여 타 제품과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음		
품목명 4	HS Code	901812	수입관세율(%)	0
초음파 영상기기 (의료기기)	수입액('17/US\$백만)	142	대한수입액('17/US\$백만)	26
	선정사유	본 품목의 한국산 점유율이 안정적임		
	시장동향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내, 공급의 80%를 외국기업에 의존하며, 직접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러시아 기업은 소수		
	경쟁동향	다양한 국적의 기업이 존재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산 제품 강세		
	진출방안	R&D 및 기술협력을 통해 고품질 제품 제공		
품목명 5	HS Code	390319	수입관세율(%)	0%
폴리스티렌	수입액('16/US\$백만)	59	대한수입액('16/US\$백만)	21
	선정사유	최근 3년간 본 품목의 한국산 점유율이 가장 높음		
	시장동향	경제개발 2030 정책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화 정책에 따라 석유화학 분야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등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반 시설이 마련되는 2020년 이전까지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		
	경쟁동향	벨기에, 헝가리 등의 유럽 국가에서 선전하고 있으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음		
	진출방안	새 폴리머 생산품 설비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대비 필요		

의료	선정사유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한-러 간 의료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병원 증가
	시장동향	러시아의 의료시장은 의료 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하여 2017년 기준 1,084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며 러시아 의료시장은 2022년까지 30.9% 성장 예상
	경쟁동향	러시아 국민에게 무료진료가 보다 친숙하며, MEDSI, EMC 등의 엘리트 병원이 이미 다수 진출
	진출방안	러시아는 타 국가의 의료면허를 인정하지 않아, 중단기적으로는 스콜코보 의료 클러스터 등의 특구로 진출 고려 필요
관광	선정사유	2017년 러시아 관광시장 규모는 676억 달러로 지속 성장
	시장동향	러시아 내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등이 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극동지역이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해외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
	경쟁동향	Coral Travel, TUI, Tez Tour, Sunmar와 같은 다양한 러시아 여행사 존재
	진출방안	중소 여행사의 경우 단독 진출을 통해 급증하는 한국 관광객의 관광 서비스 지원을 타깃으로 한 직접 진출 유망. 현지 여행사로 진출 시 아무런 제도적 제약 없음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세계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러시아 프랜차이즈 산업은 최근 3년간 98% 이상의 양적 성장을 이룸
	시장동향	2010년 595개였던 러시아 프랜차이즈 브랜드 등록 수는 2018년 3배(214%)가 늘어난 1,700개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자국 브랜드 60%, 외국 브랜드 40%로 구성
	경쟁동향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대표적 프랜차이즈 업체가 러시아 현지화에 성공
	진출방안	한국에서 이미 표준화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 하고 있는 펫샵, 배달, 패션, 선물용품, 액세서리 등 초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종에 대한 러시아 시장의 관심 증가
교육 (E-Learning)	선정사유	IT 분야 성장으로 러시아 온라인 교육시장 성장
	시장동향	러시아 E-Learning 시장은 현재 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5년 후 2021년 시장규모는 8억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
	경쟁동향	언어적 문제로 러시아 자국 플랫폼이 강세
	진출방안	외국어 교육에 대한 러시아인의 수요 증가로 중국어, 영어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가 유망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한-CIS 교역·투자 환경제고	제2차 CIS 농업협력플라자	4월/모스크바, 크라스노다르
2		극동러시아 프로젝트 파트너십	5월/블라디보스톡
3		K-Startup Global Showcase in CIS	2분기/모스크바, 민스크
4		한-러 Eco 프로젝트 협력포럼	6월/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5		한-CIS 스타트업 Joint Innovation Meeting+	8월/모스크바, 알마티
6		러시아 국제 조선항만해양 개발 전시회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7	CIS지역 타깃품목·시장공략 고도화	시베리아 의료·뷰티산업 맞춤형 서비스	연중/노보
8		신규 및 인기 한국 소비재 전시·판촉전	연중/모스크바, 울란바토르
9		러시아·중앙아시아 보건협력포럼 및 상담회	1분기/모스크바, 알마티
10		남 카프카스 경제협력 사절단	5월/바쿠, 모스크바
11		이르쿠츠크주 종합상담회	2분기/이르쿠츠크
12		시베리아 알타이 주 농축산 전략사절단	2분기/바르나울
13		2019 Korea Pop-up Store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
14		한-러 스마트 농업 파트너십	9월/모스크바
15	현지기관· 기업별 既구축 플랫폼 활용	Sberbank-IDF 플랫폼 활용 인콰이어리 지원	연중/모스크바
16		2019 러시아 국제 오일&가스 산업전시회	4월/모스크바
17		제5차 동방경제포럼 연계, 신북방 파트너십	9월/블라디
18		2019 러시아 국제 조선항만해양 전시회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19		Yugagro 2019 한국 Pavillion 참가	11월/크라스노다르
20	상호보완 가능 산업 분야별 협업	한-러 산업 클러스터 간 기술협력 지원	연중/ 상트페테르부르크
21		한-러 중소기업 기술협력 포럼	9월/모스크바

가. 한-러 교역·투자 환경제고 사업추진

□ 한-CIS 협력 프로젝트 다변화

- 한-러 Eco 프로젝트 협력 포럼

- (배경) 러시아 정부의 환경법 변경에 따라 환경 프로젝트 다대

- ① 주요 주별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운영자 선정 및 소각시설 구축
 - ② 주요 300개 공장의 매연, 폐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협업기관) 러 산업부 및 기업협회(RSP), 한 환경협회 및 환경공단
- (추진) 양국 정부 기관의 협력 포럼 및 기업 상담회 개최

- 극동러시아 프로젝트 파트너십

- (배경)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및 제조업육성을 배경으로 우리기업의 극동러시아 진출 기회 확대 필요
- (추진) 극동러 투자진출 환경 설명회 및 주요 프로젝트 IR·상담회 개최

- 한-러 조선산업 협력 확대

- (배경) 침체된 국내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진출 활성화 및 러시아 현지 조선 프로젝트 수요에 맞는 기업 발굴 필요
- (추진) 2019년 개최예정 러 조선전시회(NEVA) 연계 조선사절단 등 개최

□ 한-CIS 스타트업 확대

- 한-CIS 스타트업 Joint Innovation Meeting+

- (목적) 스타트업간 유사 아이디어 및 기술의 융복합, 상호보완을 통한 합작, 기술 협력 활성화
- (추진) 조선, 철도, 로봇 및 드론(IT), 의료·보건, 핀테크, 농업 등 특정 분야를 선정, 유사한 기술 공동연구 및 상품화 가능 스타트업 기업 상담

* 러 스콜코보 및 스타트업 지원기관, AtomInvest(RosAtom 자회사)*, GVA(Global Venture Alliance) 등 기타 CIS 각 국가의 관련기관과 협업

- K-Startup Global Showcase in CIS

- (배경) 스타트업의 전체 생애주기 가운데 KOTRA는 초기 생존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특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제조·기술보유 기업, 연구기관, 금융, VC를 한데 모은 세미나 및 B2B 상담회

나. 러시아 타깃품목·시장공략 고도화

□ 스마트 농업 파트너십

- 한-러 스마트 농업 파트너십
 - (목적)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기자재 품질 인증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및 신북방 정책 '9개의 다리(9 Bridge)' 전략 중 농업분야 협력
 - (추진) 한국의 기자재와 기술을 활용한 온실 테스트 베드 구축

▶ 러시아 스마트 농업 발주처

마스콥스키 : 1994년 설립된 러시아 최대의 농식품 및 화훼 재배 기업

총 78개 종류의 채소를 1일 500톤 가량 생산, 150개의 저장 창고 보유

에코폴뚜라 : 2015년 설립된 온실 채소 재배 전문 기업(약 145 헥타르 종합 온실 보유)

2023년까지 58헥타르 규모의 스마트 온실 구축 추진

□ 신규 유망 소비재 및 미개척 지역 수출확대

- 신규 및 인기 소비재 전시·판촉전
 - (목적) 소비재 취급 내수기업 및 다품종소량 수출 기업 지원 확대
 - (추진) 신규수출기업화 대상 기업 20여개사 선정, 외상조건(60일-90일) 제품을 현지바이어 위탁 판매 후 수입대금 및 운송비 사후 지불

[업무 추진 과정]



- 시베리아 의료·뷰티산업 맞춤형 서비스
 - (목적) 러시아 미개척 관구의 한국 의료·뷰티산업 유망기업 발굴 및 현지 진출 확대
 - (추진) 토탈 마케팅 전담직원 채용 및 메디컬파크 파트너십을 통한 연중 지원
 - * 최근 5년간 러시아 수입상승률은 의약품 30.6%, 의료기기 8.4%, 화장품 18.3%
- 이르쿠츠크주 종합상담회
 - (목적) 시베리아 내 미개척시장(이르쿠츠크 등) 대상으로 한국 제품 홍보
 - (추진) K-POP, 한식시연 등 문화행사를 동반한 B2B 상담회

- 시베리아 알타이 주 농축산 전략사절단
 - (목적) 극동시베리아지역 신시장개척 및 기술협력을 통한 투자진출 유도
 - (추진) 알타이 주 현지 농업기업 및 주정부와 한국 농축산 기업 상담회
- 2019 Korea Pop-up Store
 - (목적) 국내 소비재의 러시아 시장 인지도 확대 및 내수기업 수출지원 확대
 - (추진) 관할지 최대 쇼핑센터와 협업, 'Korean Week' 행사 등 개최하여 문화행사 및 한국 소비재 판촉, 1:1 상담회 등 수행

□ 의료·보건서비스 진출확대

- 러시아·중앙아시아 보건협력 포럼 및 상담회
 - (배경) CIS 주요국의 보건시스템 현대화 및 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술 및 제조업 기반이 취약
 - (추진) 병원시스템, 건강검진센터, eHealth 기술, 제약 등 보건산업의 전반 관련 정부기관·기업 초청 보건협력포럼 및 B2B 상담회 개최

□ 신시장 개척 및 지역특화 사업

- 남카프카스 경제협력 사절단
 - (배경) 무역관 진출이 없는 지역이나 지경학적 요충지 시장 개척 필요
 - (추진) 조지아-아제르바이잔 순회 상품전시 및 수출상담회

다. 현지기관·기업별 既구축플랫폼 활용

□ 현지기관 비즈니스 플랫폼 활용

- Sberbank·IDF(산업개발펀드) 플랫폼 활용 인콰이어리 지원
 - (배경) 무역관 진출이 없는 지역이나 지경학적 요충지 시장 개척 필요
 - (추진) 현지기관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BuyKorea 러시아 인콰이어리 등재와 국내 기업 현지 플랫폼 사업제안 등재 등 양방향 사업 수요 매칭
 - * 수시지원이 가능, 플랫폼 등재 양국 기업 간 오프라인 상담회 추진
- 동방경제포럼 연계, 신북방 진출 파트너십
 - (배경) 국·러시아 동포 네트워크 다대, 양국 동포기업 간 협력, 한국기업과 협업을 통한 신북방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가능성

- (추진) 중국·러시아 동포기업가 협업 프로젝트 및 극동러 유망 프로젝트 발굴, 한-중-러 한민족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 OKTA, 조선족연변자치주 상무국, 극동개발공사, 사할린 및 연해주 고려인 협회, KOTRA 선양 무역관 등과 협업

□ 현지 전시회 및 박람회 활용

- 9-Bridge 산업별 현지전시회 한국 Pavillion
 - (배경) 신북방정책 '9개의 다리(9 Bridge)' 전략산업인 자원개발·조선·농업에 한국기업 참가 실현
 - (추진) 러시아 국제 오일&가스 산업전시회(4월, 모스크바), 러시아 국제 조선항만해양 개발 전시회(9월, 상트), Yugagro 2019(11월, 크라스노다르) 중 한국 Pavillion 참가

라. 상호 보완 가능 산업분야별 협업

□ 한-CIS 중소기업 기술협력사업

- 한-러 중소기업 기술협력 포럼
 - (목적) 단순 상품/서비스 수출이 아닌 기술협력을 통해 현지 합작법인 설립, 현지 생산 등 추후 협력 확대의 발판 마련
 - (추진) 기술협력 포럼 및 B2B 상담회 개최
 - * RSPP(러 기업협의회), REU(러 엔지니어링협의회) 협업을 통해 참가 기업 유치
- 한-러 산업 클러스터 간 기술협력 지원
 - (목적) 한-러 산업 클러스터 소속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확대, 클러스터 운영 노하우 공유 등으로 양국 간 협력 확대 기대
 - (추진) 기술협력 사절단 및 공동 포럼 등 개최
 -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및 러시아 클러스터 등과 협업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내용	일시(잠정)	비고
Russian Investment Forum	2019. 2. 14~15	소치
Krasnoyarsk Economic Forum	2019. 4. 11~13	크라스노야르스크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2019. 6. 6~8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 경제 포럼	2019. 9. 4~6	블라디보스토크
Forum One : Digital Revolution	2019. 10	모스크바
Interregional Industrial Forum	2019. 11	모스크바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시/장소
농업	농업, 가축 관련 전 품목	AgroFarm2019	2019. 2. 5~7/ 모스크바
식품	식료품	Prod Expo	2019. 2. 11~15/ 모스크바
광산업	광산 및 원료 가공 장비	Neftegaz 2019	2019. 4. 15~18/ 모스크바
에너지	대체 에너지 자원	World Smart Energy Summit Russia 2019	2019. 3. 26~27/ 모스크바
건축	건축 및 마감 자재	MosBuild Moscow 2019	2019. 4. 2~5/ 모스크바
항공	항공장비, 항공기 공학 기술, 비행장 디자인, 항공기 유지보수	Aircraft Maintenance Russia and CIS 2019	2019. 3. 5~6/ 모스크바
보안	보안 시스템, 화재 안전 시스템, CCTV, 경보기, 신원확인 등	Securika 2019	2019. 2. 27~3. 2/ 모스크바
도시인프라	기후 장치, 배관, 상·하수도	Aquatherm Moscow 2019	2019. 2. 12~15/ 모스크바
플랜트	기계 공학, 산업용 자동차, 금속 가공, 금속 공학, 공구	Machine Tool 2019	2019. 10. 15~18/ 모스크바
기계설비	장비, 컨베이어, 포장, 생산 재료	RUS Upack	2019. 6. 18~21/ 모스크바
건축자재	금속, 석재, 유리, 세라믹, 플라스틱, 목재, 자물쇠 등	MITEX	2019. 11/ 모스크바
조명	전등, LED 관련 제품	Interlight	2019. 11/ 모스크바
치과	치과 장비 및 재료	Dental Expo	2019. 9. 23~26/ 모스크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시/장소
미용	화장품 및 미용술	Intercharm	2019. 10. 23~26/ 모스크바
건강	건강,약품, 라이프스타일, 의료 관광	Zdravookhranenie	2019. 12/ 모스크바
의약품	의약품 생산 장비, 원자재 및 기술	Innoprom	2019. 7. 8~11/ 예카테린부르크
금속	금속가공 장비 및 기술	MetallurgMash	2019. 11. 13~16/ 모스크바
농업	농산물 생산 장비 및 자재, 농기계	Agrosib	2019. 11. 7~9/ 노보시비리스크

답 당 자

모스크바 무역관 김택영
Tel 070-7001-0588

직 책 과장
Email montecristo@kotra.or.kr

2019 국별 진출전략

러시아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